

“숲을 보는 시야로 변화 선도하는 기업돼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신년사 통해 경영전략 밝혀
김종갑 한전사장 “원가 적기 반영 전기요금체계 도입”
정의선 현대차부회장 “미래차 핵심 자율주행 적극 투자”

‘인공지능으로 인한 업계 불 변화’, ‘조직문화 혁신’, ‘글로벌 저성장 극복’ ‘준법 경영 강화’...

광주-전남지역 연관 주요 기업은 2일 일제히 사무실을 열고,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영전략을 제시했다. 2020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며 입을 모았지만, 대규모 투자계획 등 공격적 경영으로 이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준(51) 효성 회장은 “새해에는 숲속의 고객을 보는 기업, 그 숲을 더 풍성하게 하는 기업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 본사에서 열린 사무실에서 신년사를 통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Singularity’ (특이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모든 분야에서 업의 개념, 게임의 룰이 통째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변화는 나무 하나만 보서는 알 수 없다. 숲을 보는 시야를 가지고 빠른 변화를 알아내 선도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숲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만 그 생태계 안에서 효성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고객의 소리(VOC)를 끊임없이 강조해온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며 “고객의 목소리를 나침반으로 삼아야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갑(68) 한전 사장은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도입을 급선무로 들었다. 이날 오후 나주 본사에서 열린 사무실에서 김 사장은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점을 감안해 한전공대 설립, 지역 상생발전 등 현안을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공익성과 기업성’이 꼭 대립하는 이슈는 아니”라며 “이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소액 투자자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회사 한전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해 동료와 투자자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며 5가지로 압축된 우선순위 목표를 들었다.

김 사장은 “원가를 적기에 반영하는 요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력그룹사 11개사 간 불필요한 경쟁을 최소화하고 비경쟁영역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회의의 대폭 축소 등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부서별 학습 조직 정례화 등 전문성을 높이자고 덧붙였다.

“젊은 현대차”를 내건 정의선(49) 현대차 수석부회장은 그룹 총투자를 연간 20조원 규모로 크게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또 “완성차 사업은 권역별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수익성 중심의 사업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본사 부문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준 효성회장 | 이재용 삼성부회장 |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 김종갑 한전사장

현대차가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자율주행차는 오는 2023년부터 일부 지역 운행할 방침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미래차의 핵심인 자율주행 분야는 애플과 삼성으로 설립한 미국 합작법인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혁신적인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2023년에는 상용화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현대차 계획에 따르면 2022년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2023년 일부 지역 운행 시작, 2024년 하반기 본격 양산된다.

그는 밀레니얼 세대 고객과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사업 체질 개선을 위해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을 통해 근본적인 원가혁신 활동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경기도 화성사업장 반도체연구소를 찾아 새해 첫 일정을 소화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3나노 공정기술과 관련해 보고 받고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사정단과 차세대 반도체 전략을 논의했다고 회사는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현장에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역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임직원들에 “잘못된 관행과 사고는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이웃,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자 100년 기업에 이르는 길임을 명심하자”라고도 덧붙였다.

삼성내부 준법경영 강화방안의 하나로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에 대한 계획을 이날 밝혔다. 위원장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내정됐고, 외부 인사 위주로 위원들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오는 2030년까지 총 133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로 올라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첫 일정보로는 경기 수원사업장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통신장비 생산라인 가동식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의 전방 기지’를 둘러봤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75.17 (-22.50) ↓ 금리(국고채 3년) 1.33 (-0.03)
↑ 코스닥 674.02 (+4.19) ↑ 환율(USD) 1158.10 (+1.70)

광주은행 마재필·이동수 부회장 승진

광주은행은 1일자로 간부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마재필(54·업무지원본부), 이동수(56·경영기획본부) 부행장보가 부행장으로 승진·임명됐다.

권사업본부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송중욱 행장은 2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사무식’을 열고, 올해 경영전략을 발표했다. 송 행장은 오는 2022년까지 여·수신 시장점유율을 광주지역은 4%포인트 늘린 35%, 전남지역은 6%포인트 증가한 2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새얼굴

“지역 중소벤처기업 애로 해결 최선”

김흥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본부장

“광주 근무경험을 통해 구축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일 취임한 김흥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기업인력 애로센터 인력매칭 등을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흥 출신인 김 신임 본부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공단에 입사해 호남연수원·전남동부지부·광주본부장 등 광주·전남에서 근무경험이 풍부해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다. 공단 인재경영실장을 거쳐 이번에 다시 광주본부장에 발령됐다.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 전력”

윤영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장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연수를 선도하고, 스마트제조 전문인력을 양성에 전력하겠습니다.” 2일 취임한 윤영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장은 “호남지역 대표 중소벤처기업 제작자 교육기관으로서 지역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흥 출신인 윤 신임 원장은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6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입사했다. 광주와 전북본부 사업운영팀장과 인재경영실 노무복지팀장 등을 역임했다.



“지역 소상공인 애로 해소 협력”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지자체·중소기업 지원기관들과 협력해 지원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 임명된 이창호 공제서비스부장은 “협동조합의 일차적 목소리를 통해 지역경제 및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를 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본부장은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와 한림대학교를 졸업했다. 1994년 중소기업중앙회에 입사해 총무부, 감사실, 홍보실을 거쳐 가업승계지원센터장, 조합정책실장, 공제서비스부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수출기업 상반기 전망 “기대반 우려반”

광주상의 110개사 조사... “호전될 것” 43%, “악화될 것” 40%

광주권 수출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수출과 관련, ‘기대반, 우려반’의 엇갈린 전망을 나타냈다.

2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상의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 중인 수출기업 110개사를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수출전망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48개사(43.6%)가 올해 상반기보다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44개사(40.0%)는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18개사(16.4%)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호전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신규 거래

처 확보 75.0%, 수입국의 경기회복 16.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수출기업들이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아세안 등의 신흥국으로 시장 개척에 나서면서 신규 수요 발굴과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87.5%), ‘의류기기’ (75.0%), ‘가전·전자부품’ (55.0%), ‘기계·금형’ (46.2%) 품목이 제품개발에 따른 수출 증가와 전시·박람회 등을 통한 거래선 발굴 등으로 인해 ‘호전’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농수축산물’ (66.7%), ‘운송차부품’ (60.0%), ‘철강·금속가공’

(54.5%), ‘기타’ (50.0%) 품목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주문 감소와 인건비·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 경기 ‘악화’를 우려했다.

상반기 수출 불안요인(복수응답)으로는 물품 단가와 채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가격인상’ (22.3%)과 ‘미·중 무역전쟁’ (21.9%), ‘환율불안’ (17.2%) 등을 지목했다.

2020년 상반기 수출전망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복수응답)으로는 급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와 시설투자 효과 등을 들어 ‘베트남’ (18.2%)을 가장 높게 꼽았다.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복수응답)으로는 가격경쟁 심화, 규제강화, 경

기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불규칙 등을 들어 ‘중국’ (25.5%)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와 수출지원 기관에 바라는 정책 지원과 제로는 ‘수출 금융 지원’ (25.5%), ‘원자재 가격 안정’ (17.3%), ‘FTA 활용지원 확대’ (11.8%), ‘전시회 등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11.8%) 등의 과제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올 한 해 대내외적인 약세 요인들로 기업들의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과 신규품목 발굴 등의 노력으로 내년 상반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면서 “새해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